



군종주보

2018년 12월 9일(제905호)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신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그중 힘들었지만 가장 소중했고 지금도 도움이 되는 기억 중 하나가 바로 대침묵에 대한 것입니다. 신자들과 분당 행사를 하거나 혹은 시끌벅적 주일 미사를 마치고 사제관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혼자만의 대침묵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때면 왜 신학교에서 그토록 대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요시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시작한 시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 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래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나야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주석서를 좀 찾아보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대를 명시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활동하신 것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을 읽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함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역사 안에서 그 시대를 가늠해 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세례자 요한에게 내립니다. 이 대목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예언자를 시켜 이사이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붓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이사이의 아들들을 처음 봤을 때 잘생기고 키 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잘나 보였던 형들을 제쳐놓고 들판에 나가 양들을 치고 있던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인류를 구할 메시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다시 모아 들일 예수님의 길을 닦을 사람... 이러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황제 혹은 총독, 그도 아니면 돈이 많거나 당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제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요한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힘들고 고된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답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만나 기뻐 뿔뿔던 사람답게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던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내릴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광야와 같은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그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가 사제관에 혼자 있는 대침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떠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계시기에 혹은 생활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에 대침묵의 시간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잠깐 약 10분, 15분 만이라도 산책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에서, 운전중 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탄을 준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내려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나와 우리 가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광야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이번 한 주 자신만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조용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진(프란치스코) 신부
진성대(공군 17진비대)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바룩 5,1-9
- 회 답 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제 2 독 시** 필리 1,4-6.8-11
- 복음 본보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끈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
- 복 음** 루카 3,1-6
- 영 성 제 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김현우 마태오



성인명: 김현우 마태오 (金顯禹 Matthew)

신분: 중인, 순교자

활동연도: 1775-1801년

김현우(金顯禹) 마태오는 한양 명례방의 유명한 역관 집안에서 서자(庶子)로 태어났다. 1786년경 유배지에서 사망한 김범우 토마스는 그의 맏형이자 이복형이고, 1801년 포도청에서 매를 맞아 순교한 김이우 바르나바는 그의 친형이다.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얼마 안 되어, 맏형 김 토마스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한 김 마태오는 형인 김 바르나바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당시 그들 형제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이승훈 베드로였다. 이어 1785년에 일어난 '명례방 사건'으로 김 토마스가 유배를 가면서 그들 형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며, 비밀리에 기도 생활을 계속해 나갔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뒤, 김 마태오는 형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홍필주 필립보의 집으로 가서 주 야고보 신부를 만났으며, 정인혁 타대오, 최필제 베드로 등 몇몇 교우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자주 기도 모임을 하거나 교리를 강습하였다. 이후 김 마태오는 주 신부가 박해의 위협 때문에 잠시 형의 집을 피신처로 삼자, 그곳으로 가서 미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형과 함께 주 야고보 신부가 설립한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또 1800년에 주 신부가 다시 한번 형의 집을 방문하자, 김 마태오도 그곳으로 가서 교우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김 마태오는 형 김 바르나바와 함께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특히 김 마태오가 체포될 때는 찬란하고 커다란 십자가가 나타나, 그의 앞에서 옥으로 가는 길을 가리켰다고 전한다.

포도청에서는 곧바로 김 마태오에게 엄한 문초와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하거나 그동안의 행적을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며, 누구의 종적도 밀고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다시 형조로 이송되어 굳센 신앙의 의지로 형벌을 이겨 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김현우 마태오는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였다.

복 음 묵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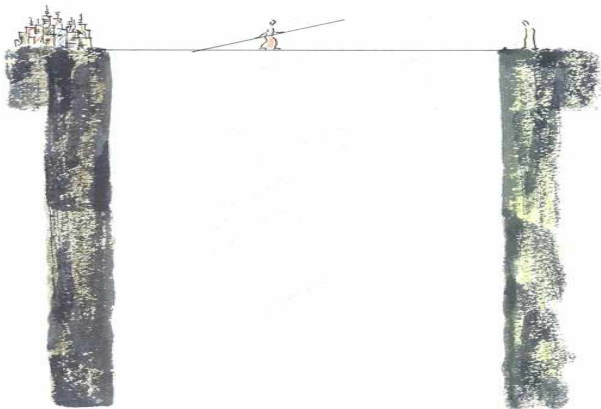
가야 할 길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가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이.



상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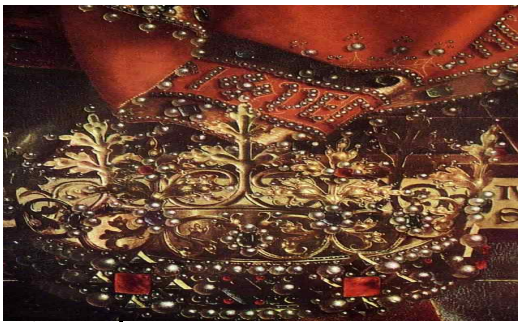
켄트 제단화(열린 모습)



지난주에 소개했던 성화를 열면 본 제단화가 나온다. 상단부의 중앙에는 왕 중의 왕이신 성부(성자, 성령)를 중심으로 왼쪽부터 아담, 노래하는 천사들과 성모님, 세례자 요한,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들과 이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모든 인물은 머리카락 한올 한올과, 입고 있는 옷감의 모피의 터럭 하나하나까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노래를 부르는 천사들(각기 다른 왕관을 쓰고 있다)의 입 모양과 표정만 보아도 그들이 무슨 음의 노래를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

안 반 아이크, 1432년 작
나무 위 유화, 350X223cm
상 바보 성당(St. Bavo Cathedral), 벨기에 켄트



예수님의 발지에 놓여진 왕관



성모님의 왕관은 성모님의 수녀과 등장할 상징하는 꽃과 함께 장식되어 있다.

이곳은 천상의 영역으로, 성모님과 성부(성자, 성령)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최고의 귀한 보석과 옷으로, 성부께서는 왕 중의 왕다운 모습으로 왕좌에 앉아 계신다. 지난주의 고요한 지상의 세계인 성모님이 거주하시는 소박한 느낌의 길땃개 그림과 달리 안쪽은 천상의 빛, 천상의 소리, 천상의 거룩한 화려함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압도한다.

김은혜(엘리사벳)



노래하는 천사들의 모습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의를 위한 미사 - 다음 제2주일: 칠성대 최장민 신부

◆ 교구장 동정

- 해병중앙(해병대사령부) 성당 사목방문

때: 12월 9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12월 11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신교단 총회

때·곳: 12월 13일(목) 18:00, 군중교구청 1층 소성당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